

## 研究發表

# 存養省察과 窮理의 問題

——朱子·退溪·退野·小楠의 系譜——

廣島大教授·文博 友枝龍太郎

<目 次>	
I. 存養省察과 窮理	III. 窮理
II. 存養省察	

### I. 存養省察과 窮理

朱子(1130~1200)는 전에 經歷했던 李延平의 未發의 氣象體認說과 張南軒의 已發의 察識端倪說을 止揚하고 程伊川說을 主軸으로하여 40歲에 自己의 已發未發說을 樹立하였는데 이것은 心意識未發의 때에는 天理의 本眞을 存養하고 心意識發勃의 때에는 天理의 本眞을 省察한다는 것이며 또 存養省察이라는 心의 靜動은 敬에 의해서 貫通되는 것이었다. 이 已發未發 存養省察의 說은 心意識의 問題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後「大學」의 格物致知의 問題가 展開함에 이르러 전에 省察察識 가운데 包含되어 있던 格物窮理의 主知的 性格이 점차 浮刻되어 存養을 學科課程의 小學에, 省察을 學科課程의 大學의 誠意에, 窮理를 또한 大學의 格物致知에 關連지어서 存養—窮理—省察이라는 圖式이 完成하기에 이르렀다. 存養省察은 主體的 體認의 問題이며 이것은 靜的인 默照禪, 動的인 看話禪과 관련을 가지나 朱子가 開發한 格物窮理는 當時의 不立文字의 禪에 대한 合理主義, 主知主義의 宣言이었다. 그것은 그가「人心之靈 莫不有知 而天下之物 莫不有理」라 하고

即凡天下之物 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大學補傳)

이라고 하였고. 또

或考之事爲之者 或察之念慮之微 或求之文字之中 或索之講論之際 使於心身性情之德。人倫日常之常 以至天地鬼神之變。鳥獸草木之宜 自其一物之中 莫不有以見其所當然而不容已 與其所以然而不可易者。(大學或問)

라고 한데서 明瞭하다 朱子學의 要諦는 存養省察의 體認自覺과 卽物窮理의 主知主義가 交錯하는 點에 있다.

## II. 存養省察

李退溪(1501~1570)는 當初『心經附註』를 入手하고서 이것에 熟中하고 있는데 心經을 大禹謨의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에서 시작하여 聖賢論心の 格言을 모아 朱子の 敬齋箴·求放心齋銘·導德性齋銘에서 끝맺고 있다. 여기서도 心の 問題가 主로 取扱되어 存養의 省察이 交互說明되어 있음은 附註의 諸家의 說에 의해서 明白하다. 그리하고보면 退溪가 이러한 存養省察로 一貫된 心學으로부터 朱子學으로 들어간것은 疑問의 餘地가 없다. 그後 43歲(1543)에 朝鮮에서 刊行된 朱子文集을 入手하고서 15年間을 지나『朱子書節要』를 編하는데 朱子の 未完인 中和舊說은 四書와 함께 採用되어 있지않고 答張欽夫의 「語說倒蒙印下云云」(節要三 和李全上 66面)과 與湖南諸公論中和說 第一畫(節要 18 同上 370面)는 틀림없이 採用되어 있다. 이兩書는 朱子の 已發未發說·程子養觀說과 同一한 主張이며 그는 中和舊說을 採用하지 않은것은 그것이 未完說로서 動에 偏奇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點 未發存養 已發省察說의 受容은 53歲때의 「天命圖說」第十節 論存省之要的

當此心未發之時 必主於敬 而加存養工夫 當此心已發之際 亦必主於敬 而加省察工夫。此敬學之所以成始成終而通貫體用者也。(和李全下 235面)

로 되고 또 退溪의 後叙에서는

敬以存養於靜者 是周子之主靜立極 而子思由戒懼致中之謂也。敬以省察於動者 是周子之定之修之事 而子思由謹獨致和之謂也。(同上 241面)

라고 되어있다. 이와같은 主張은 58歲의 序를 기다리는 『自省錄』의 答金惇叙書 中에도 많이 보인다. (同上 335~7面)

### 存養省察과 窮理의 問題

大塚退野(1677~1750)은 當初 陽明學을 배웠었는데 28歲때 李退溪의 『自省錄』 『朱子書節要』를 읽고 程朱의 學에 뜻을 갖게된 사람이다 그가 中和說에서

未發之中者 即心指性 故曰道之體。已發之和者 固情也 故曰道之用 夫指未發而專習性 則朱子未完之說 而不合程子中非性之旨。未發已發者 因心體流行而有其名 故中道者也。道之名因用而得名 故其體者理而其用者氣也。非是以氣爲道。已發氣用事者是也 未發亦不可言無氣 故心者理氣之合也。以動靜分性情 靜者氣不用事 故可言性 而天下之大本也。動者道之用 而氣得中 則天下之遠道也。(牟齋存稿 肥文叢四 598面)

라고 한 것은 朱子の 未完說에 反省을 加하여 더욱 理氣性情論을 關連지어 未發大本 已發遠道の 說明을 行한 것인데 朱子·退溪의 傳統에 따르는 것이다.

横井小楠(1809~69)이 江戸에 遊學하여 酒失로 歸郷후 37歲때 自己의 行動에 反省을 加하여 朱子學을 向하면서

嘗讀朱子書 如有會其旨 致知固不輕 所重在實踐 靜裡養間氣 動處察天理 須臾不離道 至此是達士。(小楠傳 67面)

라고 읊은것은 存養省察論의 受容이다.

### III. 窮 理

窮理에 관해서 退溪의 方法은 顯著하게 漸進의이다. 그가

窮理多端 不可拘一法。……·所窮之事 或……·非力索可通, 或 ··難強以燭破 ··且當置此一事 別就他事上窮得。如是窮來窮去 積累深熟 自然心地漸明 義理之實 漸著目前。時復拈起向之窮不得底 細意細繹 與已窮得底道理 參驗照勘 不知不覺地 拜前未窮底 一時相發悟解 是乃窮理之活法。··若延平說侍一事融釋脫落 而後循序少進者 即是窮理恒規 當如是。其意味尤爲淵永。與程子之言 初不相妨。(自省錄 答李叔獻 別紙 和李全342面)

라고 말하는 것은 朱子가 『大學或問』에 나타난 程子·延平의 說가 符合되어 있고 또

窮理須就日用平易明白處看破教熟 優游涵泳於其所已知。唯非著意非不著意之間 照管勿忘 積之之久 自然融會而有得。尤不可執捉制縛以取其速驗也。(答南時甫 同上 322面)

라고 述하여 南時甫의 「悟」에 대한 說明을 물리치고

聖言上達不言悟 功在循循積久中 既說無爲便脫誤 如何自說落禪空。(同上)

이라고 타일르고 있는데 「非著意非不著意」를 비롯하여 表現은 매우 延平의이다.

朱子는 『大學或問』에서 延平은 程子の 規模의 크기, 條理의 조밀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면서도 延平의 工夫가 漸次·意味의 深切함을 稱揚하고 있다. 하고 보면 延平을 받는 退溪도 朱子의 窮理를 心學의 體認自覺을 깊게 해 간 것으로 보인다. 退溪가 『延平答問跋』을 쓴 것은 54歲때이며 이로부터 조금前에 이 책을 가진 以來 대단히 尊重하고 있다.

退野가 그 體驗說에서 「先虛心平氣로 本을 다한다함은 매우 肝要합니다. 이 위에 靑을 조금히 하지않고 얻은것에 固滯않고 疑心나는 곳을 늘 心에 두고 생각을 깊이하고 新奇可喜之說을 좋아하지 않고 古人의 平易한 說에 따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춘 後에 格物의 功을 用합니다. 그 用樣은 一理에 있으니 其理를 推究融釋하고 脫落한 後에 別事를 窮究합니다. 그것도 또한 如此히 하여 日夜 怠慢함이 없으면 積累의 功에 의해서 脫然貫通의 妙處에 이릅니다. (爭齋存稿 二 肥文叢 611面)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延平 退溪의 立場을 受容한데 不過하다.

小橋이 「此道未聞一躍求 不助不長自悠悠」(遺稿 874面)이라 읊은 點은 退野·退溪에 類似하고 또 「學의 義는 如何하던 나의 心에 관해서 理解하여야 합니다... 古人의 이른바 學이라는 것이 果然 어찌하냐고 본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方才의 修行입니다. 良心을 擴充하고 日用事物에 功을 用해가면 모두 學이 아님이 없습니다. 父子兄弟夫婦사이에서 賢에 事하고 友에 交하고 賢에 親해 矣를 愛함이며 百工技藝 農商者와 階級하고 山河草木鳥獸에 이르기까지 그 事에 即하여 그 理를 解하고 그 위에 帛를 읽고 古人의 事歷成法은 생각, 義理를 究盡함이 없음을 알고 孜孜 不止하고 우리의 心으로 하여금 나날이 靈活하게 하는 이것이 즉 學問입니다」(遺稿 932面)라고 說明하는 것으로서 退野·退溪의 心上方寸의 修行을 받으면서 朱子의 『大學或問』을

## 存養省察과 窮理의 問題

活用하여 靈活한 小楠의 心은 그 經綸과 結付되어 있다.

그리고 窮理爲學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退溪는

第一須先將世間窮通得失榮辱利害 一切置之度外 不以累於靈台 既并得此心則 所患蓋已五七分休歇矣。(自省錄 答南時甫 和李奎321面)

라고 했는데 이것은 朱子語類의 「若乃身外榮辱休戚 當一切聽命而已。(卷八 輔廣錄) 및 陽明文錄의 「諸友宜……刊落聲華 務於切己處 着實用力」(全 四 與辰中諸生)에 근거되어있고 退野·小楠도 屢屢히 이것을 引用했다.

窮理에 관해서 말하면 『延平答問』을 重視한 退溪는 體認體驗에 겨루어서 그 깊이를 더해 이 點에 心學으로서의 朱子學의 特色을 陽明學과 다른 樣相으로 展開하는데 成功했다. 그러나 朱子의 格物窮理의 規模를 縮少하고 理를 心으로 주립이 過한 感을 받는다. 이것은 退野도 같다. 小楠은 朱子學을 일단 主體的인 自覺의 學으로서 受容하고 또 神知靈覺이 湧出하여 심물과 같은 그의 經論의 才는 朱子의 格物窮理說의 規模를 그대로 繼承하는 것같이 보였으나 晩年에는 다짐내 「堯舜」三代治道の 格物과 宋儒의 格物과는 意味가 이르지 못한곳이 있다. 一草一木 모두 理가 있어서 이것을 格해야 한다고는 들었으나 이것도 草木은 生殖을 이루어서 民生의 用을 達하는 그러한 格物이라고 서는 생각 안되며 어쨌든 窮理하고서의 格物이라고 한다」고하고 「堯舜으로 하여금 當世에 生하게 하면 西洋의 砲艦器械百工의 精한 技術의 功은 그 功用을 다하여 當世를 經論하고 工夫를 넓히는것은 西洋에 미칠수 있는것은 아니다」(沼山閑話·遺稿 923面)라고 하여 西洋의 器械術의 窮理의 淵源을 堯舜三代의 學에 包含시키려 고 했다. 이것은 小楠이 大學을 「誠意一致知一誠意」로 解하고 朱子窮理學의 博大한 특히 天文曆數의 研究·水稻作栽培技術의 開發·救荒과 社倉建設·土地改革經界案의 作成등을 심분 理解하지 못했던데 起因한다. 西洋의 器械術을 理解驅使하는 우리들의 知的立場의 淵源은 이것을 堯舜三代의 學으로 돌리려 보다는 오히려 朱子의 窮理學의 合理主義·主知主義로 돌리려 그 發展線上에서 把握해 가는것이 思想의 展開로서는 妥當하다. 그러나 理性主義·知識主義의 缺陷은 잘못하던 人間의 主體性을

喪失하는 傾向을 갖는다. 이런 意味에 있어 우리들은 人間의 主體性 恢復이라는 立場에서 退溪·退野·小楠의 朱子學을 높이 評 하여 主體의 根源에 徹底하고 또 知識을 넓혀 合理的 立場에 서서 二十世紀의 新理學을 建設해야 할 것이다. (끝)〈原文日本語〉